A1

신증후출열혈의 급성 핍뇨성 신부전 환자의 Dopamine과 Furosemide의 병합 효과

인하의대 신장내과: 송준호*, 홍의수, 방제소, 김여주, 김문재

고농도의 furosemide는 급성신부전에서 이뇨를 촉진시켜 핍뇨기간을 줄이고 투석 치료의 빈도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용량의 dopamine 역시 신혈관 저항을 감소시키고 신피질의 혈류를 개선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 두 약제는 급성신부전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저자들은 신증후출열혈의 핍뇨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의 dopamine (2 ug/kg/min)과 고용량의 furosemide (20mg/hr)을 핍뇨초기에 12-48 시간 연속 병합투여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환자는 전체 신증후출열혈 환자 중 입원 후 핍뇨성 신부전이 나타난 환자들로 선정되었으며, 총 26명으로 대조군 14명 (평균연령 42 ± 16세)과 furosemide + dopamine 병합 치료군 12명(43 ± 9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치료군의 핍뇨 발생 시 BUN, 최고 BUN 및 회복기 BUN은 46.8 ± 18.2, 56.9 ± 22.0 및 16.3 ± 6.33 mg/dl로 대조군의 53.8 ± 25.6, 76.2 ± 26.7 및 12.4 ± 8.2mg/dl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치료군의 핍뇨 발생 시 Cr, 최고 Cr 및 회복기 Cr은 4.0 ± 2.5, 5.1 ± 1.9 및 1.2 ± 0.3 mg/dl로 대조군의 4.0 ± 2.3, 7.3 ± 2.6 및 1.5 ± 0.4 mg/dl와 비교할 때, 최고 Cr치가 의미있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p<0.05$).

4. 치료군의 핍뇨기의 기간은 3.0 ± 1.8 일로 대조군의 5.7 ± 3.0 일에 비해 의미있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p<o.05$). 핍뇨 시작에서 최고 Cr에 이른 날까지의 기간은 치료군이 3.2 ± 1.5 일로 대조군의 4.4 ± 1.1 일에 비해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p<0.05$). 최고 Cr이 나타난 날에서 회복일까지 기간은 차이가 없었다.

5. 전체 신부전 기간은 치료군이 9.5 ± 6.3일, 비교군이 11.3 ± 5.4 일로 양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대상 환자 중 사망 환자는 없었으며, 투석이 필요하였던 경우는 치료군이 4예 (혈액투석 1예, 복막투석 3예), 대조군이 7예 (혈액투석 3예, 복막투석 4예)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신증후출열혈의 핍뇨성 신부전 환자에서 핍뇨 초기에 dopamine과 furosemide의 병합 투여는 핍뇨 기간을 줄이고 투석 치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2

Yersinia pseudotuberculosis(YP) 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

구자욱[1], 정철영[1], 박혜원[2], 정해일[3], 최용[3].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1], 보라매 병원[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3] 소아과학교실

서론 및 목적 : YP 감염증은 장간막 임파선염, 결절성 홍반, 드물게 패혈증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임상양상을 띤다. 본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ARF)은 일본에서 1981년부터 보고되었다. 1987년 이후 대변배양 검사(45례)와 혈청학적 검사(25례)에 의해 YP 감염증으로 진단된 70례를 대상으로 본 감염증의 임상양상, ARF의 양상 및 검사소견 등을 분석하여 YP와 연관된 ARF의 특징적 성상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대변 및 물의 배양은 CIN 배지에 48시간 상온에서 실시하였으며, serotyping은 항혈청(Denka Seiken)을 이용한 particle agglutination 방법 및 microagglutination 기법으로 하였다. 임상 양상 및 검사 소견은 병록지를 통하여, ARF군과 non-ARF군으로 나누어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성적 : 18례(25.7%)에서 ARF가 발생하였으며, 남녀비는 0.8:1, 평균 연령은 10.7세였으며 non-ARF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67/70)의 환아들이 살균처리되지 않은 물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음용한 물의 배양에서 YP가 5례 동정되었다. 가장 흔한 serotypes은 5형(33/70) 및 4형(25/70)이었다. 본 감염증은 갑작스런 고열, 홍반성 발진, 복통 등을 주증상으로 시작되었다. ARF군의 경우 질병 경과 후반부에 손톱 주위의 낙설이 상당수 발생하였으나, 다른 임상양상은 양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혈소판증가증, 저알부민혈증, 경도의 단백뇨, 현미경적 혈뇨, 무균성 농뇨 등이 ARF군에서 현저하게 관찰되었다. ARF는 발열 후 2일 - 7일(평균 8.8일)째에 발생하였으며, 핍뇨(12례)는 체온이 정상화 되면서 생겼다. 1례에서 혈액투석이 필요하였으나, 적어도 4주이내에 모든 환자가 완전 회복되었다. 신장조직 검사는 주로 급성간질성 신염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결론 : YP는 살균처리되지 않은 물을 먹은 기왕력이 있는 소아에서 ARF를 유발시키는 급성간질성 신염의 한 원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